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오랫동안 인류를 위한 영감의 근원이 되어 왔다. 성경에 비교되는 또 하나의 경전인 *물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에는 구주의 더 많은 가르침이 들어 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영감으로 인도해 줌으로써 여러분에게 영속적인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물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무료로 얻고자 한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www.mormon.org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조셉 스미스: 하나님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열네 살이었을 때 그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진지한 기도로써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에게 나타나서 지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분들은 참된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 조셉을 선택하셨다.

그날부터 조셉은 후기의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일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오늘날 지상의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므로써 교회를 인도하신다. 조셉 스미스는



조셉은 어느 교회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성경에서 인도를 구하였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보았다.

선지자였다. 조셉은 그의 생애 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헌신한 것이다. 그는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라고 기록했다.

성신의 권능을 통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가 부름 받아 행한 일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그들은 조셉 스미스가 예배하고 섬겼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평화와 행복을 알 수 있다.

어느 교회가 옳은가?

조셉 스미스는 1805년에 버몬트 주 샤론에서 태어났다. 이 사건이 시작되던 당시 열네 살이었던 그는 가족과 함께 뉴욕에서 살고 있었으며 어느 교회에 가입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다. 다음은 조셉 자신이 기록한 그의 경험이다.

이 커다란 동요의 시기에 내 마음은 진지한 묵상에 잠기는 한편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나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내가 이들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으로 야기된 극심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야고보서 일 장 오절을 읽고 있었다. 그 곳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

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는 몰랐고, 또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전에는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교파의 종교 교사들이 같은 성경 구절을 너무나 서로 다르게 이해하여, 성경에 호소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신념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나는 암흑과 혼란 속에 머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든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해 보리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었다.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이 결심 곧 하나님께 구하기로 한 나의 결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해 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때는 일천 팔백이십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이었다. 내가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은 나의 평생에 처음이었는데, 이는 나의 모든 염려 중에서도 내가 아직 소리 내어 기도하기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 한 분이 ...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
하셨다.

내가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으로 들어간 뒤에 주위를 살펴 나 혼자임을 확인한 후,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그 힘이 놀라운 영향력을 내게 미쳐 내 혀를 묶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캄캄한 어둠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고, 한동안은 내가 갑작스런 멸망을 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고자 내 온 힘을 다하면서도,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멸망에-상상 속의 멸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에게서도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어떤 실제적인 존재의 힘에-금방이라도 내 자신을 포기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

내가 주께 묻기 위해 갔던 목적은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아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즉시 내 위에 빛 가운데서 계시는 두 분께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으며 (이때까지는 모두가 그르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내가 받은 대답은 그 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그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들의 모든 신조는 그가 보시기에 가증하며 그 신자들은 모두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라고 하셨다.

그분은 다시 나에게 그 중 어디에도 가입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다른 많은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것을 지금 기록할 수는 없다. 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워 있음을 알았다. 그 빛이 떠났을 때 나는 기운이 없었으나 곧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집으로 갔다.

박해

조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당시의 어떤 교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마자 그는 반대와 박해를 겪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한 이야기가 종교 신자들 사이에서 내게 대한 큰 편견을 야기하였고 심한 핍박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으며, 핍박은 계속 커져갔다. 비록 내가 겨우 나이가 십사오 세에 불과한 이름 없는 소년이었으나, 생활 상태로 보더라도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소년이었으나, 그럼에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큰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대한 민심을 선동하여 심한 핍박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교파에 공통적이었으니, 모두가 연합하여 나를 핍박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나로 하여금 진지한 속고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후로도 종종 그리하였다. 참으로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만 십사 세를 갓 넘긴 무명의 소년이자, 또한 하루 하루 일하여 부족한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의 소년이 그토록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당시의 제일 유명한 교파들의 큰 어른들의 주의를 끌며 그들 내부에 극심한 핍박과 비방의 태도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그러나 이상하든 아니든 그것은 사실이었으며 그것은 종종 나에게 큰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현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 이래로 나는 내가 바울과 매우 비슷하게 느꼈다고 생각해 왔으니, 그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그가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시현에 대하여 이야기했어도, 그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일부는 그가 거짓말한다고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하였다. 또 그는 조롱당하고 욕설을 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시현의 실재성을 파괴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시현을 보았고 자기가 보았음을 알았으며, 하늘 아래 어떠한 핍박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었다. 비록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빛을 보았으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알고 있었을 것이며, 온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게 하거나 믿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는 것일까?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왜 세상은 내가 실제로 본 것을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려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나는 시현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과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시현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세상의 교파 문제에 관한 한 내 마음에 만족을 얻었으니—그 어느 곳에도 가입할 의무가 내게는 없으며 다만 추후의 지시가 주어질 때까지 이대로 계속해 나가면 되었다. 나는 야고보의 증언 즉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것이요 꾸짖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참됨을 알았다.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계속 확인하였으므로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일천팔백이십삼년 구월 이십일일까지 나의 평범한 생업에 계속 종사해 오고 있었다.

내가 시현을 본 때로부터 일천팔백이십삼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 동안—나는 당시의 어느 교파에도 가입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고 매우 어린 나이였는데 나의 친구가 되어 주고 친절히 나를 대해 주며, 만일 내가 미혹되었다고 생각되면 나를 돌이키기 위해 적절하고도 애정에

찬 방법으로 애써야 마땅할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으므로 나는 온갖 유혹에 노출되었으며, 온갖 부류의 무리와 어울리면서 자주 많은 어리석은 잘못에 빠졌고, 젊음의 약점과 인간 본성의 결점을 드러냈으며, 말하기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큰 죄나 사악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죄를 범할 기질은 결코 내 본성에 있지 않았다.

모로나이의 방문

조셉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는 계속되었다. 1823년 9월 21일에 조셉은 잠자리로 간 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다. 이 때 그에게 천사 모로나이가 나타났다.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험을 본 지 삼 년 후에 하나님은 천사 모로나이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 조셉을 가르치셨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구월 이십일일 저녁에 자려고 침실에 들어간 후 나는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해 주실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처지와 입장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하며 간구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얻은 것 같이 신성한 나타내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을 때, 나는 한 줄기 빛이 내 방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내 방은 한낮보다도 더 밝아지더니 홀연히 누가 내 침대 곁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발이 마룻바닥에 닿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가 공중에 서 있음을 알았다.

그는 좀 늘어진 지극히 흰 성의를 걸치고 있었으며 그 흰색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것이었고, 세상에 그토록 희고 찬란한 것이 있다고는 믿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그의 손은 드러나 있었고 손목 조금 위까지 팔도 드러나 있었으며 발도 벗은 채였고 발목 조금 위까지 다리도 드러나 있었다. 또한 머리와 목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드러나 있었고 그가 입은 성의가 열려 있어 앞가슴이 들여다보였으며 그리하여 나는 그가 그 외에 다른 옷을 입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의 성의만이 그토록 흰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몸이 형용할 수조차 없이 희었으며 그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고 방이 그토록 밝은데도 그의 주변은 더욱 밝았다. 처음에 나는 그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곧 두려움은 내게서 물러갔다.

그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대륙의 옛 주민에 관한 기사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금판에 쓰여진, 책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그 책에는 구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또한 실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은테에 물린 돌 두개가 있는데-가슴판에 연결된 이 돌들은 우림과 둠뫼이라 불리는 것을 이루며-판과 함께 묻혀 있고, 이 돌들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고대 곧 예전에는 “선견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번역할 목적으로 이를 마련해 두셨다고 하였다.



주후 421년에 선지자 모로나이는 그의 백성에 대한 성스러운 기록을 쿠모라 산에 묻었다. 후에 부활한 몸으로 돌아온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고대의 기록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에는 구주께서 고대 미대륙 백성들에게 전하신 대로 온전한 복음이 담겨 있었다. 그 기록이 물문경이다.

이러한 것들을 내게 말한 다음 그는 구약전서의 예언들을 인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는 먼저 말라기서 삼 장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또한 같은 예언서의 마지막 장인 사 장을 인용하였다. 그는 그 일 절을 우리의 책에 나오는 대로 인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보라, 용광로같이 타는 날이 이르리니, 모든 교만한 자와 참으로 모든 악하게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타리라. 이는 오는 자들이 그들을 사르리니,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그는 그 오 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그는 또한 그 다음 구절을 다르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이에 덧붙여 그는 이사야 십일 장을 인용하며 이르기를, 이것은 바야흐로 성취되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 삼 장 이십이, 이십삼 절을 우리의 신약전서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시라 하였고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림을 당할” 그 날이 아직은 오지 아니하였으나 곧 이르리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요엘서 이 장 이십팔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인용하고 또한 이르기를,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다. 덧붙여 그는 말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함이 곧 임하리라고 하였다. 그가 다른 많은

경전 구절을 인용하고 많은 설명을 해 주었으나 그것을 여
기에 언급할 수는 없다.

또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말한 그 판을 내가 가지게 되
면-이는 그 판을 얻게 될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기 때
문이었다-나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되며, 우

내 마음
가운데는
시현이 열려
나는 판이
문힌 곳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었으며

림과 뭍뭍이 달린 가슴판도 그
러하되, 다만 그것들을 보여
주도록 내가 명령 받은 사람들
에게만 보여야 하고, 만일 그
외의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 준
다면 나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판에 관하여 나
와 대화하는 사이 내 마음 가
운데는 시현이 열려 나는 판이
문힌 곳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내가 그 곳을 찾아갔을 때 나는
바로 그 곳임을 알았다.

이러한 교통 후에 내가 보매, 방안에 있던 빛이 내게
말씀하시던 분의 주위로 즉시 모이기 시작하더니 계속하여
그렇게 되다가, 이윽고 그의 바로 주위만 밝을 뿐 방안은
또다시 어두워졌다. 그러다가 홀연히 전과 같이 하늘 바로
위로 통로가 열리는 듯하더니 그는 올라가 드디어는 보이
지 아니하였고, 방안은 다시 하늘의 빛이 깃들기 이전처럼
되었다.

나는 누운 채로 그 특이한 광경을 마음에 두고 특별한
임무를 지닌 사자가 내게 전해 준 바를 크게 기이하게 생
각하며 있었는데, 그러면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나는 내 방에 다시 빛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과 같이 순식간에 바로 그 하늘의 사자가 다시 내 침대
곁에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여 처음 방문 때 전하였던 말을
한 마디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전하였고,
그런 후에, 기근과 검과 역병으로 인한 큰 황폐로 큰 심판
이 땅 위에 임하며 이 두려운 심판이 이 세대에 이 땅에
임하리라는 것을 내게 알려 주었다. 이 말을 마친 뒤 그는
다시 그전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인상들이 내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잠은 내 눈에서 달아나 버렸고 나는 보고 들은 일
에 놀라워하며 압도되어 누워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
자를 다시 내 침대 곁에서 보고, 그가 그전과 똑같은 말을
내게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더욱 놀



쿠모라 산은 뉴욕 주 팔마이라의 스미스가 농장에서 남동쪽으로 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조셉이 살던 시절에는 그 북쪽 끝은 풀로 덮여 있었고 남쪽은 나무와 숲들이 흩어져 있었다. 금판은 꼭대기에서 멀리 앞은 남서쪽 면에 묻혀 있었다. 사진 촬영: 1907년 8월

라고 말았다. 그는 덧붙여 내게 주의를 주며 말하기를 (내
친가의 궁핍한 형편 때문에)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그 판
을 취하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이를 금하면서 내가 그 판을 얻음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목
적도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 외
에 다른 어떠한 동기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
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
였다.

이 세 번째 방문 후에 그는 그전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

갔고 나는 다시 내가 방금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의 사자가 세 번째로 내게서 떠나 올라간 거의 직후에 닭이 울었고, 나는 동이 트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대화가 밤새도록 계속되었음을 알았다.



모로나이는 사 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돌아와서 짧은 선지자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 사 년 후 조셉은 금판을 받아서 물문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평상시대로 해야 할 일을 하러 갔다. 그러나 다른 때처럼 일을 하려 하였을 때 나는 기력이 너무나 소진되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와 함께 일하던 부친이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나더러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집으로 가려는 생각으로 출발하였으나 우리가 있던 발의 율타리를 지나려 하였을 때, 완전히 기진하여 땅에 쓰러졌으며,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말을 거는 음성이었다. 내가 쳐다보니, 바로 그 사자가 그전처럼 빛에 둘러싸여 내 머리 위에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어서 그는 또다시 지난밤에 내게 전하였던 말을 모두 나에게 다시 말하고, 내 부친에게 가서 내가 받은 시현과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라고 내게 명했다.

나는 순종하여 발에 계시는 부친에게 돌아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부친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시며 내게 사자가 명한 대로 가서 행하라고 하셨다. 나는 발을 떠나 사자가 판이 묻혀 있다고 했던 장소로 갔고, 그에 관해 내가 보았던 시현이 뚜렷했던지라 나는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를 알 수 있었다.

성스러운 기록

누 욱 주 온타리오 군 맨체스터 마을 인근에, 그 근방에서는 제일 높은 큼직한 산이 하나 있다. 정상에서 멀지 않은 이 산 서편, 큼지막한 돌 밑에 판이 있었는데 돌 상자 속에 넣어 있었다. 이 돌은 위쪽 중앙 부분이 두껍고 둥글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게 되어 있어서 그 중앙 부분은 땅 위로 드러나 보였지만 가장자리는 모두 흙으로 덮혀 있었다.

나는 흙을 치운 다음, 지렛대를 구해다가 돌 가장자리 밑에 고정시키고 약간의 힘을 주어 들어 올렸다.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거기에는 사자가 말한 대로 판과 우림과 둠뭇, 그리고 가슴판이 보였다. 이것들이 담겨 있는 상자는 일종의 시멘트로 돌들을 함께 쌓아 만든 것이었다. 상자 밑바닥에는 돌 두 개가 상자를 가로질러 놓여져 있고, 이 돌 위에 판과 또 다른 것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려 하였으나 사자가 금하였으므로 그

것들을 꺼낼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때로부터 사
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다시 알려 주었다. 그
러나 그는 내가 그때부터 정확히 일 년 후에 그 곳에 와야
하며, 거기에서 그가 나를 만날 것이며, 판을 얻을 때가
오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게 말했다.

따라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매 한 해가 다 되면, 매
번 그 곳에서 같은 사자를 만났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대화에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
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마지막 날에 그의 왕국이 인도되어
야 할 것인가에 관해 그로부터 가르침과 지식을 얻었다.

정상에서
멀지 않은
이 산 서편,
크지막한 돌 밑에
판이 있었는데
돌 상자 속에
놓여 있었다.

내 부친의 생활 형편이 매
우 어려웠기에, 우리는 일당
을 받고 일하거나 그렇지 않
으면 달리 할 수 있는대로 기
회를 찾아 우리 손으로 직접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
리는 때로는 집에 있었고, 때
로는 집을 떠나 있었는데, 계속해서 일함으로써 편안한 생
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조셉은 여러 가지 일을 하여 가족들에게 안락한 생활을 마련해
주었다. 1825년에 그는 뉴욕 주 세낭고 군에서 일자리를 얻었
다. 그곳에서 그는 에머 헤일을 만나 1827년 1월 18일에 결
혼했다.

드디어 판과 우림과 둠땀과 가슴판을 얻을 때가 이르렀
다. 일천팔백이십칠년 구월 이십이일, 또 한 해가 다 되어
늘 하던 대로 그것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자, 바로 그
하늘의 사자가 다음과 같은 명령과 함께 그것들을 내게 내
주었다. 즉 내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내가
소홀히 하거나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태만하여 그것들을

잃는다면 나는 끊어버림을 당할 것이나, 그 사자가 이를
달라 할 때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보전하려고 애쓴다면
그것들은 보호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것처럼 엄한 당부를
받은 이유와 내가 내 손에 요구되는 일을 끝내면 그가 이
를 가지러 오겠다고 한 이유를 곧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
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를 내
게서 빼앗아가려고 온갖 격렬한 수단이 다 사용되었기 때
문이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술책
이 다 동원되었다. 핍박은 이전보다 더 혹독하고 격심해졌
으며 수많은 무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들을 내게서 빼앗
아 가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사
용하여 내게 요구된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
것들은 내 손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약속된 대로 사자가
이를 가지러 왔을 때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일천팔백삼십팔년 오월 이일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
를 간직하고 있다...

1829년 4월 5일 올리버 카우드리가 나의 집에 왔
다. 그때까지 나는 결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
는 내게 말하길, 자기는 내 부친이 사시는 곳 근처의 학교
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고, 내 부친 또한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었기에, 한동안 부친의 집에 하숙했었는데,
그 곳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내가 판을 얻은 경위를 이야
기해 주었으므로 내게 물어보러 왔다고 말했다.

카우드리씨가 도착한 지 이틀 후에 (4월 7일) 나는 몰
몬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나를 위하여 필기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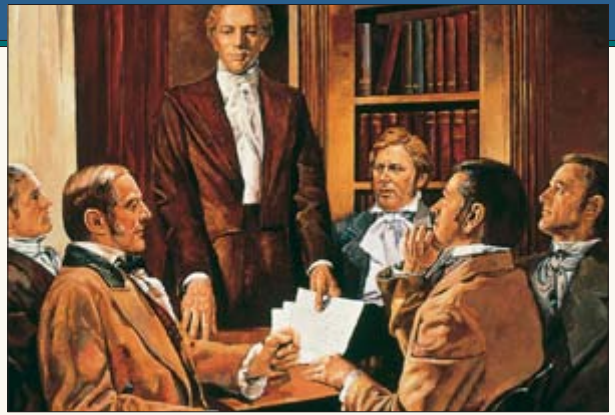
1829년 4월에 조셉 스미스는 서기인 올리버와 함께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몰몬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조셉이 번역을 끝
낸 후 다른 사람들도 그 금판을 보는 특권을 받았다. 이 증인들

은 또한 그들의 간증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고린도후서 13:1)하기 위함이었다.

신권이 회복됨

우리는 여전히 번역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달(1829년 5월) 어느 날 우리는 판을 번역하다가 그 가운데 언급되어 있음을 알게 된 죄 사함을 위한 침례에 관하여 기도하여 주께 물어 보려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를 부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온 사자가 빛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그의 손을 우리 위에 얹고 우리를 성임하여 이르기를,

“나의 동료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1830년 4월 6일에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에서 조직되었다. 여섯 사람이 새로운 종교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뉴욕 주의 필요 조건을 달성했다는 것을 거의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증언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 하리라”고 하였다.

그는 이 아론 신권에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의 권능은 없으나 이는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되리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면서, 내가 올리버 카우드리아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가서 침례를 받았다. 내가 먼저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었다—이렇게 한 후 나는 그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그를 아론 신권에 성임하였으며, 그런 후에 그가 내게 그의 손을 얹고 나를 같은 신권에 성임 하였다.—이는 우리가 그렇게 명받은 때문이었다.

이때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한 자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고, 그 신권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1829년 5월 15일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안수에 의해 아론 신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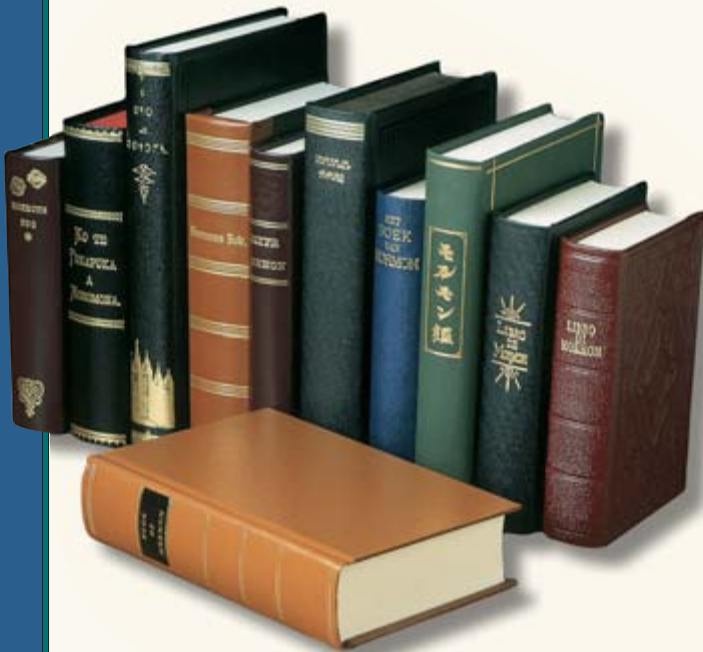
부여될 것이며, 나는 교회의 첫 장로라 일컬어지고, 그(올리버 카우드리)는 둘째 장로라 일컬어 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 사자의 손으로 성임되고 침례를 받은 것은 1829년 오월의 열다섯째 날이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바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서 오는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였다. 내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침례를 베풀자마자 성신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일어서서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또, 내가 그에게서 침례를 받자마자 나 또한 예언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일어나, 이 교회의 일어남과 또 교회에 관련된 다른 많은 일들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 예언하였다. 우리는 성신으로 충만하였으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설립과 복음의 회복을 이끈 몇몇 사건에 관한 조셉 스미스 자신의 간단하고도 솔직한 간증이다.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에 대해 보다 완전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값진 진주의 조셉 스미스-역사나 교회사, 1권 2~79쪽을 참조한다.



1830년에 처음 인쇄된 문헌들은 현재 80개 이상의 언어로 전세계에 출판되고 있다.